

전라도 정도 천년 소상공 특별 지원

전북도-전북신보, 보증 상품 신설 이차보전 지원

100억원 규모로 400여개 업체에게 자금 소진시까지

전북도와 전북신보보증재단은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는 '전라도 정도 천년기념 특별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이차보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6면〉

전라도 정도 천년을 널리 알려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을 맞이하는 자영업자를 지원함으로써 다시 찾

오는 전라도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전라도 정도 천년기념 특별보증'은 호남권(전북, 전남, 광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연합해 전라도 관광지원인근에서 음식·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동시에 지원한다. 전북도는 100억원 규모로 400여개

업체에게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한다. 전북도에서 대출금리(3.6% 내외) 중 2.5%를 최대 4년간 지원하게 되어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금리는 1.1% 내외 수준이다.

업력 제한이 없고 대표관광지 100선 반경 3km내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과도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방식도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아닌 거치상환방식으로 상황에 대한 압박감이 덜 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진성 기자

특별보증 신청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전북신보보증재단 본점 또는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다.

도 유근주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자영업자 자금지원은 물론 전라도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지 홍보도 할 수 있어 일석삼득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특화된 자금지원 제도를 마련해 우리 지역의 자영업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가 국군체육부대(경북 문경)를 방문해 전북 선수단 전지훈련 등을 협의했다.

전북체육, 지역을 넘어 더 큰곳으로

도체육회-국군체육부대 전북선수단 전지훈련 협의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는 지난 6일 국군체육부대(경북 문경)를 방문해 전북 선수단 전지훈련 등을 협의했다고 7일 밝혔다.

국군체육부대는 익산시 등 도내 일원에서 열린 올해 전국체전에 전북 소속으로 5개 종목에 출전, 활약했다.

전국체전 개최지에 우선권이 주어져 국군체육부대는 한시적으로 배구와 농구·하키·테니스·럭비 등 5개 종목을 전북 선수단으로 뛰었고 2,809점을 획득, 전북이 종합3위를 달성하는 데 보탬이 됐다. /장문성 기자

이에 도 체육회는 국군체육부대 소속 선수들의 선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도내 선수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동계강화훈련과 전지훈련, 합동훈련 등에 따른 협조사항과 전력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북체육회 최원일 사무처장은 "국군체육부대가 있어서 이번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며 "전북 체육 발전을 넘어 한국 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장문성 기자

'중기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전북도-근로복지공단 사업설명회... 공단서 설치비용 90% 지원 산단·중기 밀집지역 등에 설치될 수 있도록 대상지 발굴 등 독려

전북도는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11월 7일 도청에서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은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어린이집 설치비용의 90%,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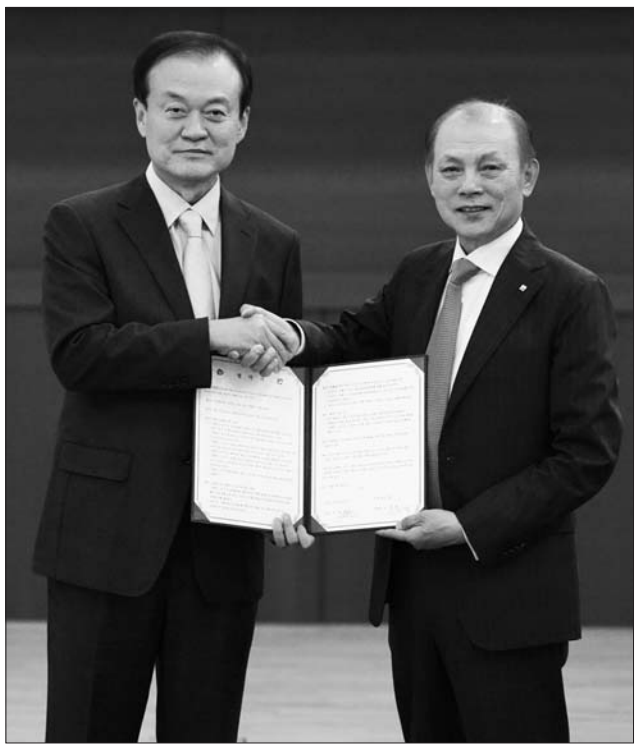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신청자격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단지 또는 지역내 우선지원대상기업 7개소 이상의 입주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되고,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2개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이면 신청 가능하다.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과정 등을 설명하며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우

수한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대상지 발굴 등을 독려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을 통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71개소가 선정되었으며, 2017년 말 기준 35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현재 도내에는 4개소(전주2, 김제1, 고창1)가 선정되어 3개소가 운영 중이며, 1개소는 구축 중에 있다.

도에서는 2017년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업무협약을 통해 시군과 함께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지역을 확정하고 참여기업을 발굴해왔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올해 5월 고창 북분자농공단의 컨소시엄이 공모에 선정된 것이다.

송금현 기업지원과장은 "도에서는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으로 요즘 직장문화 트렌드인 워라밸을 정착시키기 위해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 양립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주거래은행 업무협약 체결 7일 새만금개발공사 대강당에서 강팔문 공사 사장(왼쪽)과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이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광대, 광주·전북 기업협의체 교류회 성료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LINC+ 사업단은 최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에너지 신산업 유망기술 포럼과 광주·전북 기업협의체 교류회 및 유망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8 빛가람 국제전력 기술 엑스포에 맞춰 (주)이신건설그룹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최신품 및 트렌드, 전략을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통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기회로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스마트그리드포럼 박지식 의장을 비롯해 한국전력연구원 이학주 부장, 스마트그리드협회 이현기 팀장, 한국에너지공단 이도성 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신산업 R&D 동향 및 육성정책,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개발 현황 및 미래 전망, 추진현황과 성공사례, 활성화 방안 등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특히 포럼에 이어 MG 발전 시스템, ESS, EMS의 주제별 세 분과에 각

10개 이상의 대·중·소기업들이 참석해 기술교류 및 상생을 위한 간담회도 진행됐다.

행사 이튿날 유망기술 세미나에서는 분산형 전원 계통 기술세미나를 주제로 부산테크노파크 김영석 본부장이 '에너지 신산업으로서 해양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발전 중심)', 광주과학기술원 김의권 박사가 '4차 산업 혁명시대, AI비즈니스와 마이크로 그리드', 송산대 김준 교수가 '에너지 신산업 환경에서 마이크로 그리드의 핵심기술 및 표준 현황', 파란에너지 김성철 대표가 '분산전원과 소비자 중심 에너지 수요관리의 새로운 비즈니스' 등을 각각 발표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경제협력관산업에 포함돼 있는 에너지 관련 광주·전북 기업 및 유관기관에서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기업 간 실질적인 교류의 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노후공동주택 통합관리사무소 운영

군산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내년부터 국내 최초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사무소'를 시범 운영한다.

현재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100세대 미만)은 94개 단지 5,082세대로 그동안 관리사무소의 부재로 인해 입주민간의 갈등과 노후 시설물로 인한 각종 안전 위험 등에 노출되어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산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권역별로 나눠 통합관리사무소 운영에 나서 필요한 관리인력 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물의 관리와 각종 관리비 운영 체계화 등을 실시해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엔 시행되는 1단계 시범사업은

조촌·경안동 일대 소규모 공동주택이 밀집된 26개 단지(663세대)를 1권역으로 설정하고, 적정 장소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체계적인 주택관리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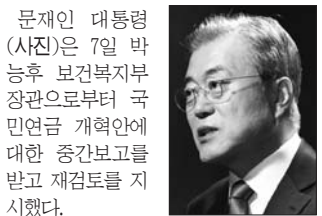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시행하고 문제점 도출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민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시민이 함께하는 행복하고 골고루 누리는 자립도시 군산 건설을 시정방적으로 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참여형 자생조직 구축과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한 후 대상지역을 군산시 전역으로 확대해 2단계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희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 수정·보완"

문 대통령,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 재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 장관에게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 "그동안 수렴해 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박 장관이 가져온 안이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 방향과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와는 맞

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사견임을 전제로 "박 장관이 가져온 안을 재검토하라고 했을 때는 단순한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라는 지시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문제 의식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국민연금의 법적 인 보장은 아니다. 보험료 인상이 가장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하고, 이달 말까지 복수의 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복지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11월 말로 잡고 있는 것으로 인다"며 "지금 대통령 지시가 내려졌으니 검토 시간이 길어지면 국회와 일정을 다시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靑,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에 '북미정상회담 무산은 아닐 것'

청와대는 7일 오는 8일로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것이 향후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고위급 회담이 연기 됐다고 해서 북미 정상회

담이 무산되거나, 동력을 상실했다거나 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다"며 "서로간의 일정이 허락될 때 회담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뉴시스

전주시 공고 제2018-1793호

산지구분도안 공고

「산지관리법」 제33조의4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산지구분도안 심사조사 결과와 반영하여 작성한 산지구분도안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호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지구분도안 일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18. 11. 6. ~ 2018. 11. 20(14일간)
- 의견 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열람장소: 전주시청 푸른도시사업과(5층)
- 공개도시: 개세생략
- 의견제출: 공고한 산지구분도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우에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경우에는 전주시 푸른도시사업과로 이력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공고사항에 대한 권리주장, 의견 및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
- 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다. 의견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촬영도면 등
- 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일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푸른도시사업과 산림관리팀 ☎(063-281-2512), 정읍국유림관리소 ☎(063-570-1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6. 전주시청

익산시(군·구) 공고 제2018-2288호

산지구분도안 공고

「산지관리법」 제33조의4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산지구분도안 심사조사 결과와 반영하여 작성한 산지구분도안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호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지구분도안 일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18. 11. 08. ~ 2018. 11. 21(14일간)
- 의견 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열람장소: 익산시 북부청사 미래농정국 산림과(2층)
- 공개도시: 개세생략
- 의견제출: 공고한 산지구분도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우에는 익산시 산림과로 이력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공고사항에 대한 권리주장, 의견 및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
- 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다. 의견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촬영도면 등
- 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일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산림과 산림행정계 ☎(063-839-5802), 정읍국유림관리소 경영지원팀 ☎(063-570-1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8. 익산시청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